

이화동창회보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 OF SO. CA NEWSLETTER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동창회 2011년 11월

발행 오명애 / 편집 김영강

회장 인사말

남가주 이화동창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저녁 쌀쌀한 공기와 나뭇잎이 울긋불긋 물들어 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제가 남가주동창회 회장직을 맡은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회장직을 맡아 의욕과 희망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2년이었습니다.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제게는 모두가 보람이 되었고,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회장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오명애 (장미 74)
남가주동창회 회장

작년 10월에는 각 지회에 10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저희 남가주지회 주최로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 3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었으나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협조로, 총회는 보나벤처 호텔에서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본교 총장님과 총동창회장님, 대외협력처장님을 비롯하여 북미주 전 지역에서 300명의 동문님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음악대학 동문회인 이음회가 다시 재개를 했으며, 녹미회 회원들의 제 1회 녹미전이 열렸고, 남가주 합창단은 새로운 지휘자님을 모셨습니다. 또한 선교부에서는 이수훈 목사님을 모시고 매주 예배와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일복이 많았던 저를 불평 없이 도와주신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무사히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 후배님들, 그 사랑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가주 모든 동창 여러분의 가족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2011년 정기총회 및 크리스마스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남가주동창회 총회와 크리스마스 파티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각 단과대학별, 부서별 등 여러 단체들과 개인별 장기자랑이 있을 예정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미리미리 계획해 주십시오. 한나리(체육 92) 동문의 재치 있는 사회는 여러분께 웃음과 즐거움을 담백 안겨줄 것입니다. 각 신문을 통해 광고가 나갈 것이니 참조해 주십시오.

❀ 날짜 : 2011년 12월 11일 (일요일)

❀ 시간 : 저녁 6:00

❀ 장소 : Wilshire Grand Hotel

9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Tel. 213-688-7777

❀ 회비 : 개인 \$80.00 / 부부 \$150.00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오명애 회장(714-723-1616), 김정순(714-606-9956) 부회장, 또는 정현숙 총무(213-675-8757)에게 연락 주십시오.

본교 소식

본교 '창립 125주년 기념식' 행사 거행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혁신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것"



본교는 5월 31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창립 125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김선옥 총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이화의 125년 역사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써 내려가기 위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자원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시대를 넘어서 시대가 따를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고, 정의와 평등으로 가는 새로운 길과 인류 사회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젊고 혁신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옥 총장

캐나다-한국 과학기술 컨퍼런스 참석

김선옥 총장은 8월 7일(일)~9일(화) 개최된 캐나다 한국 과학기술컨퍼런스(CKC)에 참석했다. CKC 2011은 캐나다와 한국의 과학 기술자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정보교환과 인적교류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한국 캐나다 과학기술자 협회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장은 8일, 공식 만찬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화가 진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본교 SCI 논문 평가에서 국내대학 2위

종합대학으로 1위

논문 질적 수준 세계 평균 웃돌아

10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핵심학술지에 실린 우리나라 논문들의 질적 평가 지표인 상대적 순위보정지수에서 본교가 1.029를 기록하여 포스텍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광주과학기술원(1.014), 서강대(1.008), 서울대(0.970), 고려대(0.932), 연세대(0.922) 순으로 이어졌다. 국가별 상대적 순위보정지수는 미국 1.088, 영국 1.074, 독일 1.038, 일본 0.971, 중국 0.942, 한국 0.933 수준이다.

등록금 마련 긴급지원제도 시행

학생처 학생복지센터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2011학년도 2학기 '등록금 옴부즈만 제도(등록금 마련 긴급지원)'를 시행하고 있다. '등록금 옴부즈만 제도'는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시행되는 등록금 긴급지원 제도이다.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된 등록금 옴부즈만 제도는 개시 당시 60명이 상담 받은 것을 시작으로 매 학기 100명 이상이 상담 받고 있으며, 지난 2011학년도 1학기에는 약 120명의 학생이 옴부즈만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

동창회 소식

남가주지회 제2회 패션쇼 성황리에 마치다



남가주 이대 동창회의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Fashion Show가 2011년 4월 20일 11시에 Garden Suite Hotel 연회장(테라스 볼룸)에서 열렸다.

한나리 동창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20여명의 동창모델들과 함께,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현재 CSUF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대 재학생 5명, 그리고 2명의 동문자녀들이 포함되어 약 30여 명의 모델이 협찬된 옷을 입고 멋진 무대를 장식했다. 젊은 모델들의 Casual 복 무대(See U Monday 협찬)를 시작으로 다음은 JoAnn Knits 의 화려하고 독특한 니트 패션 무대가 이어졌다. Poly Dress가 제공한 Prom Dress 무대는 매우 미국적인 화려함이 있었고 그리고 조선명주의 한복 무대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멋을 보여주었다. 이 행사에는 100여 명의 동창 및 내빈이 참석했고 모금된 기금은 모교와 동문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임원회

7월 27일, 제 4회 임원회가 라미라다의 르네상스에서 8월 18일, 제 5회 임원회가 부에나 비크의 Seventh Home 에서 열렸다. 4회 임원회에서는 2011년 중간 회계보고 및 패션쇼 회계보고가 있었고 올 하반기 행사인 9월 21일 골프대회, 10월 27일-30일 보스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12월 11일 정기총회 및 송년 파티, 2012년 1월 10일 경에 있을 본교 무용과 발레 공연에 대해 의논했다.

5회 임원회에서는 9월 21일 Westridge Golf Club 에서 있을 제 9회 총장배 골프대회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가비, Hole Sponsor 비, 2개 신문사 광고와 기사, 그리고 행사 후 기사. 전체 이메일과 사전 모임, 기념품 준비 등, 전반적인 것들에 관해 자세한 토의가 있었다.

이사회

2011년 하반기 이사회가 10월 22일 11:30 am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열렸다. 32명의 이사들 중 16명이 참석하고 4명이 위임함으로써 이사회가 성립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장경해 사업부장이 4월 이후의 동창회 사업 (Fashion Show, 총장배 골프대회)을 보고하고,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있을 북미주 지회연합회, 12월 11일 남가주동창회 송년파티 및 총회에 대한 사항을 보고했다. 또한 김정순 부회장으로부터 4월 이후 현재까지의 회계보고가 있었다.

제8회 남가주동문합창단 정기공연



5월 22일 제8회 남가주동문합창단 정기공연이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40여 명으로 구성된 동문합창단은 폴룻과 바이올린을 곁들인 반주로 신의 영광, 마을의 풍차, 사랑의 기쁨,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강 건너 봄이 오듯, Sound of Music Melody 등, 성가와 외국곡, 그리고 우리나라 가곡을 불러 500여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장경해(피아노 75) 동문의 오르간 독주와 정원혜(성악 83) 동문 등, 여섯 명으로 구성된 이화동문 중창단의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회는 더욱 돋보였다. 앵콜곡으로 에델바이스를 선보였고 교가제창을 끝으로 연주회는 대성공적으로 끝났다. 지휘 엄인용(성악 72) 동문, 피아노 조은미(피아노 82) 동문, 오르간 반주에는 장경해 동문이 수고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동창회측에서 준비한 다과를 나누었다.



제 9 회 총장배 골프 대회



2011년 9월 21일, 제 9회 총장배 Golf Tournament가 Westridge Golf Club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동문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12시 30분 Shot Gun으로 시작된 골프대회는 약 7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고, 게임 후에는 Club 내 Banquet Room에서 한식 Buffet 로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였다. 식사가 끝난 다음 한나리 동문의 사회로 시상식과 푸짐한 상품추첨이 있었는데, 올해의 챔피언은 84타를



친 한명자(체육 83) 동문으로, 작년에 이어 멋진 트로피의 영광을 안았다.

조종남 총동창회장 로스앤젤레스 방문



2011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차 이곳 LA에 온 조종남 총동창회장 환영회가 10월 25일(화)요일 오후 6:30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있었다. 오명에 회장 및 10여 명의 동창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조종남 총동창회장은 2013년에는 전세계의 이화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화인의 밤을 서울에서 개최하려고 추진 중이며 점점 커져가는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모교의 발전 내용 등에 관해 말했다.

합창부

5월 22일, 제 8회 정기연주회가 끝난 후, 6월 7일 JJ 호텔에서 마무리 파티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약 40 여명의 단원들이 참석했다. 7월 7일 총회에서는 새 이사장에 장경해(피아노 85) 동문이 선출되고, 단장에 이혜순(약학 70) 동문이 유임되었으며, 9월 15일에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지휘자와 반주자를 새로 초빙하기로 했다. 그리고 9월 말에 지휘자는 박신실(성악 93) 동문, 반주자는 구교진으로 결정이 되었다. 내년 공연을 위한 연습은 10월 13부터 시작했으며, 3130 West Olympic 서독안경 빌딩 430호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모이고 있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바란다. (연락처: 단장 이혜순 323-428-8872.)

선교부



선교부는 매주 수요일 Olympic 과 Harvard, 서독안경 건물 4층에서 12시부터 모여 이수훈 목사님(화학 59)의 말씀 인도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다. 열방에 흩어져 수고하고 계시는 동문 선교사(130명)들을 위해 기도하며 작은 정성이나마 선교비도 후원하고 있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바란다.

연락처: 선교부장 조남화(간호 63) 310-801-2471c

이음회



10월 7일 12시 Buena Park 소재 Seventh Home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아직은 초기 단계인 이음회 발전을 위해 좀 더 많은 회원의 참여를 위해 홍보를 하고, 가능하면 2-3년에 한 번씩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친목 모임도 가지자는 안건들이 토의되었다. 2012년 1월 14일 낮 12시에는 회장 장경해(피아노 75) 동문 집에서 신년 친목 모임을 갖기로 했다. 많은 음대 졸업생들의 참석을 바란다.

장소: 2301 Scenic Ridge Dr., Chino Hills, CA 91709
전화번호 (909) 821-2477 Email: lindaagent@aol.com

녹미회



녹미회 (회장: 린 김, 조소 71)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로스앤젤레스 Wilshire에 위치한 Lee & Lee Gallery 에서 미대 졸업생들의 작품 전시회인

녹미전을 개최했다. 남가주동창회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이 전시회에는 초대작가로 초청된, 뉴욕과 한국에서 활발히 작품전을 하고 있는 Dorothy Deon (김옥지 생미 68) 동문 등, 19명의 미대 졸업생들의 수채화, 유화, 채색화, 민화, 아크릴화 등, 총 43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15일의 Opening Reception에는 5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회장 및 회원들은 이 작품전을 위해 4월, 6월, 9월에 세 차례의 공식적인 모임을 가졌고, 또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며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현재 남가주에는 약 130명의 미대 졸업생들이 거주하고 있다. 많은 미대 졸업생들의 녹미회 참여를 바란다. 총무 정보경(생미 80)

2011 국제재단회의 및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보스턴에서 열리다



제 42회 국제재단회의 및 제 10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에 걸쳐 보스턴의 Westin Whltham Boston Hotel 에서 열렸다. 미주 전 지역에서 25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총회는 성황을 이루었다. 남가주지회에서는 17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10월 27일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회가 오명애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중요한 안건들을 토의하고 2012년도 밴쿠버에서 열리는 총회에 관하여 재확인했다.

10월 28일

230여 명의 동문들이 자리를 같이 하여 총장님과 만찬을 가졌다. 총장님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이화여대(Ewha Where Change Begin)를 위해 미래형 인재양성에 치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동숙 대외협력처장은 이화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음악 순서도 곁들여졌다.

10월29일

북미주지회연합회 정기총회가 있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연례만찬에는 250명의 동문들이 참석했으며, 눈보라와 폭풍 때문에 전기가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남가주지회 한나리(체육 92) 동문의 사회로 질서정연하게 모든 순서를 무사히 마쳤다. 장기 자랑에서는 북가주의 Phantom of the Opera 공연이 일등상을 탔다.

10월30일

남가주지회 최경숙(문과 73) 목사님의 주도로 주일 예배가 있었다. 김선욱 총장님과 조종남 총동창회장님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으며, 2012년 밴쿠버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나흘 동안의 행사를 모두 마쳤다.

신은경 교수 환영 만찬

8월 26일 발레 “메시아” 남가주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신은경 교수의 환영만찬이 세리토스의 마카로니 그릴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정태숙 동문과 김봉덕 동문, 그리고 오명애 회장, 정현숙 총무가 참석했다. 1월 19일에 있을 발레 공연을 위해 Cerritos Performing Art Center를 답사한 신은경 교수는 공연장에 아주 만족했다. 또한 남용화 님께서도(정태숙 동문의 부군) 참석을 하셨는데, 그는 이번 발레 공연에 3만 달러 정도의 도네이션을 할 예정이다.

동문 근황

박광순 동창(기문 64)

철순 기념 유화전 개최 수익금은 오페라 캘리포니아 후원



박 동창의 철순 유화전시회가 지난 9월 10일부터 20일까지 플러턴 베로니즈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9월 10일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 열린 리셉션에는 가족, 친지, 동문 등, 250여 명의 축하객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유화전의 수익금은 박 동창이 15년 동안 몸담아 온 오페라 캘리포니아 (단장 노형건) 후원금으로 지원된다.

전시된 30여 점의 유화들은 라구나 비치를 비롯해 남가주 지역의 자연을 배경으로 했으며, 특별히 큰손녀 딸 헤림 양의 모습을 담은 작품도 전시되었다.

박 동창은 지난 7년 동안 손철호(전 이대 교수) 화백으로부터 사사 받았으며, 그림뿐만이 아니라 음악과 문학에도 관심이 깊어, 64세의 나이에 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또한 평소 집필 활동도 취미로 하고 있어 수필가로서의 등단을 꿈꾸고 있다. 박 동창은 본 남가주합창단 단장과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동문자녀 장학금 수여

본 남가주동창회에서는 매년 학생들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격은 동문의 직계자녀로서 고등학교 12 학년부터 대학 4학년까지, 에세이 제출, 학업성적은 GPA 3.2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 환경과 형편이 참조되며 위의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은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에 대해서는 황혜원(무용85) 동문(310-408-5244)에게 문의해 주시고, 11월 20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장학위원회 김정순 동문에게 제출하면 된다. <jeanyul26@gmail.com>

이(김)영강 동창(국문 66)

첫 소설집 <가시꽃 향기> 발간



미주에서 소설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 동창의 첫 소설집인 <가시꽃 향기>가 발간되었다. (해드림 출판사) 문학평론가인 박양근 교수는 작품 해설에서 “김영강은 인간의 심층 심리에 사회적 모순을 절묘하게 배합

하여 사실과 허구가 균형을 이룬 팩션(faction)소설을 완성하였으며, 도공의 손보다 섬세한 필력으로, 유화의 붓보다 담대한 기법으로 그 줄거리를 엮어냈다. 그리고 박진감 있는 구성력, 개성적인 인물 창조, 질투와 사랑의 딜레마, 반전을 활용하는 서사력이 여성의 본성을 깊게 읽어낸 투시력과 균형미를 이루면서 <가시꽃 향기>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주었다.” 고 평했다.

미주한국일보 문예공모 소설 부문으로 등단한 이 동창은 한국학교에서 오랫동안 2세 교육을 위해 힘써왔고, 각 지역학교 특강, 한국어학술세미나, 교사대학, 교사연수회 등, 강사로 참여했으며, <재미있는 한국어 연습문제집 k-6>, <교사들을 위한 고급반 학습교재>, <SAT II 교사지침서>, 그리고 재미작가 5인 동인지인 <참 좋다>를 발간한 바 있다. 현재, 본보 편집장직을 맡고 있으며, 계간 <미주문학> 편집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동창들, 서울대학 미주총동창회에 참석

지난 6월 11일, 오명애 회장 및 김정순 동문, 장경해 동문, 이해원 동문 등, 네 명이 연대, 고대를 비롯한 타 대학 대표들과 함께 Pacific Palms Resort 에서 열린 서울대학 미주총동창회 11대 김은중 회장 취임식 겸 제 10차 평의원회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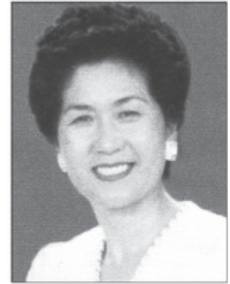


동창수필



꽃배나무

정(윤)금숙 (국문 63)

미주한국일보 문예공모 단편소설 당선
미주한국소설가협회 회원

아름다운 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병원은 폐병환자들의 요양소였다고 한다. 어쩐지 뛰어난 주위환경이 여느 병원과 달랐다. 폐병은 특히 공기가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해야 하는 병이라 나무가 많은 이곳이 적격이었을 것이다. 주위에는 유난히 꽃배나무가 많았다. 봄이 되면 하얀 꽃이 눈부시게 피어 봄바람에 눈꽃으로 휘날렸고 가을이 되면 이파리는 핏빛으로 물들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꽃배나무를 볼 때마다 어느 간호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28세 된 남미계통의 아름다운 폐병환자가 있었다. 그녀의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 남편은 그녀의 곁을 떠났다는 소문이였다. 그녀는 폐병 말기로 접어들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혼자 있는 병실의 커튼은 언제나 닫혀 있었고 그녀는 담요를 얼굴까지 뒤집어쓰고 늘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병실은 음산했고 방문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간호사들은 그 환자의 방을 피하고 싶어 했다. 그 환자는 시도때도 없이 간호사들한테 신경질을 부렸다.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마치 의사나 간호사들의 탓인 양 불평불만을 토해냈다.

어느 날, 그녀의 병실에 들어간 간호사는 깜짝 놀랐다. 커튼이 열려진 방은 환했고 환자는 밝은 얼굴로 간호사에게 인사를 했다. 열려진 창틈으로 스며들어온 꽃배나무 꽃향기가 은은하게 방안을 감돌고 있었다. 창밖의 봄 잔치를 꿈틀 꾸듯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환상적이었다. 폐병환자 특유의 증상으로 오후가 되면 미열이 올라 홍조를 띤 얼굴이 더 예뻐 보였다.

그녀가 “오늘은 그 사람이 오는 날이에요.” 하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녀의 눈동자는 기대에 차 반짝반짝 빛났다. 모두들 누가 나타날 것인가 하고 관심들을 갖고 있었다. 드디어 한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대학교수로 얼마 전에 입원했던 환자였다. 그는 그녀의 휠체어를 밀고 꽃배나무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오솔길을 말없이 산책했고, 나란히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도 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꽃 면사포를 쓰고 있는 신부의 모습같이 아름다웠다. 그는 이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올 때마다 그녀를 방문했다.

점점 그녀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가 오는 날은 아침부터 커튼이 열려, 병실은 밝고 활기찼으며 그녀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다. 기다림이 그녀에게 희망을 가져다 줬다. 완전히 바뀐 그녀의 분위기는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신선한 자극으로 모두에게 다가왔다. 간호사들도 그가 온다는 날은 아침부터 덩달아 기분이 들며 뭔가를 그들에게 해주고 싶어 했다. 예쁜 곰인형도 사오고 하트형 초코렛도 준비해서 두 사람의 데이트를 더 아름답게 꾸며줬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에 연민을 자아내게 했다.

꽃배나무 이파리가 한 잎 두 잎 빨강게 물들기 시작했다. 금방 낙엽으로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열정을 다해 불태우고 있는 꽃배나무. 열매 맺지 못한 한을 온몸으로 붉게 태우고 있는 꽃배나무는 그들의 사연까지 담아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육체의 고통을 넘어 영혼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을 보여준 그들은 꽃배나무의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건강한 우리들은 상처받고 싶지 않아 사랑하기를 망설이며 차라리 낙엽으로 뒹굴기를 자청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가장 예쁜 색깔로 물든 이파리 하나가 반짝하고 그녀의 미소로 내게 비쳤다.

2011년 회비납부현황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이사회비

고은주 (영문 61)
김경숙 (음대 64)
김경숙 (정외 55)
김동실 (무용 67)
김봉덕 (체육 60)
김부자 (교육 61)
김영교 (영문 63)
김정순 (간호 75)
김진현 (체육 49)
동양순 (영문 44)
문금숙 (국문 63)
박화자 (간호 66)
송은섭 (법과 57)
송정현 (교육 57)
안성옥 (가정 61)
오명애 (장미 74)
이숙현 (가정 67)
장계원 (도서 76)
장경해 (피아노75)
정매인 (성악 60)
정태숙 (교육 61)
정현숙 (체육 87)
조남화 (간호 63)

동창회비

고복주 (생물 70)
고은주 (영문 61)
갈영옥 (피아노66)
김경숙 (음대 64)
김구인 (서양화 70)
김동순 (식영 77)
김동실 (무용 67)
김미수 (가정 62)
김봉덕 (체육 60)
김부자 (교육 61)
김순배 (간호 73)
김양숙 (불문 70)
김엘렌 (국사 87)
김영강 (국문 66)
김영교 (영문 63)
김영순 (간호 73)
김영옥 (생미 70)
김영자 (무용 63)
김용인 (간호 75)
김정순 (간호 75)
김정자 (수학 62)
김주경 (음대 77)
김혜숙 (간호 72)
나일선 (간호 76)
독고미경(섬예85)
동양순 (영문 44)
문금숙 (국문 63)

문인순 (생미 68)
민경문 (사학 64)
박대현 (장미 64)
배금신 (조소 71)
박광순 (기문 64)
박홍자 (교심 64)
박화자 (간호 66)
성정순 (체육 49)
송은섭 (법과 57)
송정현 (교육 57)
신금자 (수학 67)
심명주 (사사 80)
안성옥 (가정 61)
양근향 (과교 86)
엄인용 (음대 71)
염정자 (영문 60)
오명애 (장미 74)
유정자 (가정 64)
윤영애 (사사 59)
윤옥자 (교육 57)
이보경 (약학 60)
이복형 (체육 61)
이선미 (사생 64)
이숙현 (가정 67)
이윤주 (체육 84)
이정인 (정외 71)
이정현 (도서 76)

이정희 (경영 85)
이충선 (약학 56)
이혜순 (약학 70)
임정희 (간호 76)
장경해 (음대 75)
장계원 (도서관76)
정에스터 (신방75)
정매인 (성악 60)
정태숙 (교육 61)
정현숙 (체육 87)
조남화 (간호 63)
조은미 (음대 82)
최기홍 (교육 62)
최애리 (무용 77)
최 연 (사학 77)
추경아 (영문 89)
추춘실 (영문 67)
하명숙 (체육 66)
하영옥 (법학 70)
한나리 (체육 92)
한명남 (간호 73)
한유정 (장미 96)
홍정순 (간호 73)
황선영 (성악 83)
황혜원 (무용 85)

회비는 남가주동창회 P.O. Box 74173, Los Angeles, CA 90004로

보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회계담당 이정희(경영 85) 동문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Tel(714) 290-6116 E-mail: julia-lee@live.com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P.O. Box 74173, Los Angeles, CA 90004-0173